



EBB 실모공방

2027학년도 대비

심화편 ADVANCED

2027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문논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6문항 11소문항 · 80점 · 120분

2027 모의논술 가이드북의 문항 형식·배점 반영

공식 모의와 같은 채점 방식(체크리스트형·수준형)

2026년 최신 시사 통계 + 고교 교과서 제재

ADVANCED

실전 모의고사

제2회

이 파일은 EBB 실모공방이 자체 제작한 유료 교재입니다.

무단 공유를 보시면 구매한 곳의 EBB 실모공방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 EBB 실모공방

제2회 실전 모의고사 · 인문계열 · 심화편

시험 시간 120분 (목표 풀이 시간 100분) · 6문항 11소문항 · 총 80점

수험번호

성명

응시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전과 같이 시계를 두고 끝까지 풀어 보십시오.
2. 답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쓰십시오. 문제지에 쓴 답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3. 계산기와 사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그래프의 수치는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4. 각 문항의 ※ 조건(문장 수, 글자 수, 반드시 넣을 표현)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5.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십시오(연필 사용 가능).

문항 구성

문제	배점	문항 형태	답안 조건
문제 1	20점	표 해석 → 판단·선택 + 이유 쓰기	2문장 이내 / 3문장 이내, 필수 표현
문제 2	10점	반박 관계 요약, 빈칸 찾아 쓰기, 증감 판단	200자 이내 / 각 6자 이내
문제 3	10점	그래프 해석 + 제시문 핵심 주장	300자 이내
문제 4	17점	사상 빈칸 + 제시문 근거 서술	300자 내외
문제 5	13점	한국사 시간 순서 배열 + 용어·반론	100자 내외
문제 6	10점	상황 속 정정 공지문 쓰기	200자 내외

답안 작성 요령

- 글자 수는 공식 모의 가이드북의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씁니다. 서술형 답안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 빈칸 단답의 '각 ○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씁니다(공식 예시 답안은 '각 6자 이내' 빈칸에 '노령화의 추세'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지는 띄어쓰기·문장 부호·숫자 한 자리도 한 칸입니다.
- 발문의 가)·나)는 답을 나누어 쓰는 칸의 표시이며, 답안지의 같은 표시 칸에 씁니다. 제시문 (가)·(나)와는 다릅니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감점합니다. '○○자 내외'는 기준의 85~115%를 목표로 쓰고,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으면 감점합니다.
- '찾아 쓰시오'는 제시문에 있는 말을 글자 그대로 옮겨 씁니다.
- 제목이나 서명을 쓰면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쓰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제2회 v3.23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20점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미리 정한 근로 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일을 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요건을 없애고,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지침을 고쳐, 근무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다.

판결 이후 기업들은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치거나, 정기 상여금을 줄이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은 흔히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나누어 살피는데, 고정급은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금액이 미리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늘어나는 수당 부담을 막아 인건비 총액을 절감하는 것,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을 강화하는 것, 아낀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표 1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구분	지급 방식	판결 이전	판결 이후
기본급	매월 정해진 금액	해당	해당
정기 상여금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지급일 재직자만)	대체로 해당하지 않음	해당
성과급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짐	해당하지 않음 (최소 보장분만 해당)	해당하지 않음 (최소 보장분만 해당)

표 2 기업 C의 임금 체계 개편안

구분	항목	현행(판결 이후 기준)	개편안
1인당 연간 임금(평균)	기본급	3,600만 원	4,500만 원
	정기 상여금(재직 조건)	1,200만 원	600만 원
	성과급(평가 등급별 지급, 최저 등급 0원)	1,200만 원	1,700만 원
등급별 성과급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차이	2,400만 원	3,200만 원
인력 운영	전체 직원 수	200명	200명
	1인당 월평균 연장 근로	20시간	20시간

- 1-1

표 2를 바탕으로, 기업 C의 임금 체계에서 고정급 중심 보상의 상대적 중요성이 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고, 나) 그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답안에는 반드시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시오.
- 1-2

표 1과 표 2의 자료에 근거하여, 기업 C의 개편안이 제시문에 제시된 목적① 인건비 총액 절감 ②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 강화 ③ 신규 채용 증대) 중 어느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지 가) 목적 하나를 고르고, 나)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3문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답안에는 표 2에 제시된 수치를 반드시 활용하고, "통상임금"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시오. 답안에는 가)에서 고른 목적의 핵심어를 그대로 포함하시오.

■ 채점 체크리스트

- ☐ 가) 감소로 판단했다 (증가는 0점) 3점
- ☐ 나) "정기 상여금"이라는 표현이 있다 1점
- ☐ 나) "성과급"이라는 표현이 있다 1점
- ☐ 나) 표 2의 인정 요소를 2개 이상 썼다 (1개면 1점, 표와 무관한 일반론은 0점) 2점
 - 인정 요소는 기본급(3,6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기 상여금(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성과급(1,200만 원에서 1,700만 원), 성과급 등급 간 차이(2,400만 원에서 3,200만 원)와 계산값이다. 계산값에는 고정급 4,800만 원에서 5,100만 원, 총보상 6,000만 원에서 6,800만 원, 고정급 비중 80%에서 75%, 성과급 비중 20%에서 25%가 있다.
 - 공식 기준처럼 표의 행을 지목해 방향을 맞게 쓰면 수치가 없어도 1개로 인정한다('정기 상여금이 줄고 성과급이 늘었다'는 2개). 한 행에서 한쪽 수치만 써도 그 행을 지목했으면 1개다.
 - 같은 수치가 논리 설명에 다시 쓰여도 두 요소에서 모두 인정한다.
- ☐ 나) 고정급 중심 보상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표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3점
 - 3점: 성과급(또는 총보상)이 고정급보다 더 크게 늘어 총보상 안에서 고정급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을 표 근거로 쓰고 결론을 맺었다.
 - 2점: 근거와 결론은 있으나 비중과 잊지 않고 항목의 증감만 들었거나, 고정급 금액의 변화를 틀리게 썼다 (예: '정기 상여금이 줄어 고정급이 줄었다'. 실제 고정급은 300만 원 늘었다).
 - 1점: 결론 문장만 있고 표 근거와 이어지지 않는다. 결론이 없으면 0점이다.
- ☐ 나) 2문장을 넘겼다 -2점

내 점수 _____ / 10점

■ 허용 답 · 불인정 답

- '줄어든다', '낮아진다', '약해진다'는 '감소'와 같은 판단으로 인정한다.
- 비중을 '성과급 비중이 20%에서 25%로 커진다'처럼 맞서는 쪽의 비중으로 써도 인정한다.
- 반대 방향 요소(고정급 금액은 오히려 늘)는 말로 짚지 않아도, 두 시점의 수치가 모두 들어간 계산(합계·비중)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으면 처리한 것으로 본다. 한 시점의 값만 쓰면 인정하지 않는다.
- 고정급은 제시문의 정의(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금액이 미리 정해진 임금)에 따라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이다. 표 1에서 정기 상여금은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고, '지급일 재직자만'은 실적이 아니라 재직에 붙은 조건이다.

성과급은 최저 등급이 0원이라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금액이 없다.

- ✗ '고정급이 4,8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늘었으므로 증가'는 금액만 보고 비중을 보지 않은 답이다. 가)는 0점이고, 나)는 필수 표현과 표 요소만 채점한다.
- ✗ 고정급을 기본급만으로 보고 '60%에서 약 66%로 증가'라고 쓴 답도 가) 0점이다. 정기 상여금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임금이므로 고정급에 들어간다.
- ✗ '기본급이 900만 원 올랐으므로 증가'는 반대 방향 요소만 본 답이다.

■ 답안 비교 (상·중·하)

상 10점

- 가) 감소

공백 포함 207자 · 공백 제외 163자 · 2문장 · 조건 2문장
정기 상여금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지만 기본급이 4,500만 원으로 올라 고정급은 4,8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300만 원 늘고, 성과급은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어 총보상이 6,800만 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보상 가운데 고정급의 비중이 80%에서 75%로 낮아져 고정급 중심 보상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한다.

- 득점: 가) 3 + 정기 상여금 1 + 성과급 1 + 표 요소(정기 상여금·기본급·성과급 행, 계산값) 2 + 논리 3 = 10

중 7점

- 가) 감소

공백 포함 65자 · 공백 제외 52자 · 3문장
성과급이 1,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기 상여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고정급 중심 보상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한다.

- 득점: 가) 3 + 정기 상여금 1 + 성과급 1 + 표 요소(성과급 행 수치, 정기 상여금 행 방향) 2 + 논리 2(항목의 증감만 들고 비중과 잊지 않음) - 3문장 감점 2 = 7
- 감점 요소: 2문장 조건을 넘겨 2점이 깎였다. 성과급이 늘고 정기 상여금이 준다는 것만으로는 고정급의 몫이 줄었는지 알 수 없다. 기본급이 900만 원 올라 고정급 금액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고정급과 총보상을 두 시점 모두 더해 비중을 비교해야 논리 3점이 된다.

하 4점

- 가) 증가

공백 포함 127자 · 공백 제외 101자 · 2문장